



봄소풍 나온 어린이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으로 봄소풍을 나온 어린이집 원아들이 잔디 위에서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헛구호’ 전략

어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변경안 조건부 통과
규모 축소... 제주도의회 지구지정 심의 남아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역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안이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72MW(3MW·9기)를 추가·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 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도의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 이행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이번 심의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제주도와 민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추진하는 첫 ‘민관사업’으로 기록하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해상풍력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한림, 대정, 한동·평대, 월정·행원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사업자들이 추가로 대규모 확장을 계획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게 돼 사실상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확장의 문호를 열어 주게 됐다. 또 제주자치도가 올해 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제주에너지공사)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에서 전주기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헛구호’로 전략하게 됐다.
특히 제주도 제2차 풍력종합관리 계획 법정계획에 제주도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보급 목표 해상 986MW에 대해서는 공공주도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사문화계획으

로 만들어 버렸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공의 바람자원을 정의롭게 나누고 주민과 상생하는 풍력개발’을 비전으로 풍력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볼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지구지정 면적 축소와 해양생태영향 조치계획, 지역상생방안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안 공유수면 일원 8만1070㎡(약 2만 5000평)에 30MW 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고대리기자

금·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자연장지 이용 급증... 3면 / '가정의 달' 지갑열기 무섭다... 5면

환해장성 보호구역 건축행위 기준 조정 애월·동북 등 강화... 곤을동·별도·삼양 등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북·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개소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 및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개소(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개소(애월·동북·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6개소(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는 완화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대리기자

도내 어린이집 10년새 4곳중 1곳 문 닫아 2013년 604곳 정점... 지난해 451곳으로 25% 줄어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10년 새 제주지역 어린이집 4곳중 1곳꼴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통계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수는 451곳으로 10년 전인 2021년 584곳에 견줘 133곳(-22.8%) 줄었다. 정점을 찍었던 2013년 604곳보다는 153곳(-25.3%)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99곳이던 도내 어린이집은 5년 후인 2019년 504곳으로 급감했다. 이어 2020년 489곳, 2021년 476곳으로 지난 9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2013년 전체 어린이집은 4만 3770곳에서 지난해 3만923곳으로 1만 2847곳(-29.3%) 줄며 제주지역보다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은 2만6568명이며, 현재(당시 기

준) 인원은 2만970명으로 총축률은 78.9%에 머물렀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경영난 악화는 물론 보육교사 감소, 관리 공백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취학 전 연령별(만 나이 기준)의 영·유아 수는 1세 3826명, 2세 4132명, 3세 4794명, 4세 5192명, 5세 5729명, 6세 6467명 등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됐다. 최근 3년간 도내 출생아 수는 2020년 3828명, 2021년 3655명, 2022년 3523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습니다

제주4·3사건(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 당시 2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추진을 위하여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희생자들을 찾고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 명단

<제주읍>

강승국康承國
조기홍趙基弘(내도)
강정수姜貞洙(노형)
고순기高順起(노형)
김재규金在奎(노형)
문태희文泰熙(노형)
양진옥梁珍玉(노형)
박태언朴太彦(노형)
현인표玄仁杻(노형)
박옥선朴玉善(도두)
안선화安善花(삼도)

정창립鄭昌立(삼양)
김봉추金鳳秋(아라)
진병규陳秉奎(아라)
김시종金時宗(영평)
김영순金永順(영평)
부운선夫雲善(오등)
강천중康千宗(오라)
박제식朴濟湜(오라)
이태준李泰俊(오라)
정鄭/유순여劉順如(용강)
김의봉金義奉(이도)
김전중金天中(이도)
이봉하李奉河(이도)
진경수秦景洙(이도)

김광수金光水(일도)
김용생金乙生(일도)
고일순高日順(해안)
김택지金澤智(해안)
송두옥宋斗玉(해안)
김두길金斗吉(화북)
안상준安相準(화북)
유대인俞大仁(화북)
김진현金辰鉉(화북)
강태오姜泰五(회천)
<조천면>
김용생金龍生(대흘)
고재훈高在訓(선흘)
홍옥례洪玉禮(선흘)

이석우李錫雨(신안)
김태옥金太玉(와산)
안동군安東君(와산)
강봉원姜奉元(와흘)
신오봉申五奉(와흘)
김중인金鍾仁(조천)
김대우金大祐(조천)
이윤정李允貞(조천)
한갑생韓甲生(조천)
김동민金東旻(함덕)
<애월면>
강평기姜平基(상귀)
강규인姜奎仁(어도)

김명생金明生(어음)
안세홍安世洪(어음)
<한림면>
고시천高時千(금악)
양태호梁泰鎬(동명)
김병호金秉鎬(명월)
<추자면>
이영식李永植
<서귀면>
오근보吳君補(동홍)
오테표吳泰杓(동홍)
고익광高義光(상효)
김명중金明鍾(상효)

오중화吳宗化(서귀)
문복남文福南(중문)
<대정면>
이원석李元石(무릉)
강상근姜尙根(신평)
송윤옥宋允玉(영락)
<남원면>
강주진康潤珍(남원)
현영일玄英一(남원)
홍창부洪昌富(남원)
조병식趙炳植(신에)
이경화李京花(의귀)
정명순鄭明順(의귀)
강태욱康泰旭(태홍)

<안덕면>
강문송姜文松(상천)
오봉춘吳奉春(서광)
<성산면>
김춘생金春生(신풍)
<표선면>
김경선金庚善(가시)
김우규金禹奎(가시)
김인보金仁保/김인(가시)
김영삼金永三/김화(가시)
오용주吳容柱(가시)
문창생文昌生(표선)

<도 외>
김동식金東植(경상북도 의성군)
노영근盧永根(전라남도 함평군)
정창근鄭昌根(전라남도 함평군)
오자현吳子現(충청북도)
이윤주李潤周(충청북도 단양군)
김중진金仲鎭(평안북도 구성군)

□ 기간 연중 □ 대상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찾지 못한 희생자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82)064-710-8442~4, 8458) □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 본 명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상 기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지역 등 기초자료가 실제 인물과 상이할 수 있음 ◎